

조선 시대 怪異, 災變 관련 科文 研究*

김광년**

【목차】

1. 머리말
 2. 괴이, 재변 관련 과문의 주제 의식
 3. 괴이, 재변 관련 과문의 글쓰기 방법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 과문 가운데 괴이, 재변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분석해 조선 문인들의 괴이, 재변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주제로 한 과문 작품들의 글쓰기 방식을 살펴보았다.

조선 문인들은 괴이 주제의 과문, 특히 책문에서 귀신에 대해 그 특성을 구분하여 인식하였고, 특히 제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귀신들에 대해서는 ‘妖怪’ 등의 표현을 쓰면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었다. 반면에 제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이나 조상 등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긍정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괴이, 재변 현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연 현상으로 수용하고 미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현실과 이들 현상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이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던 바, 특히 군주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노력을 근본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강조하는 성향을 보였다. 요컨대 귀신 등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정치와 연관지어 時務에 대한 주제로 승화시키는 것이 조선 과문(특히 책문)의 특징적 면모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괴이 주제 과문의 글쓰기 특징을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2S1A5C2A02093644)로,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기획 주제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살펴본바, 비교를 통한 주제 구현, 전거를 활용한 설득력 강화 두 가지를 궤이 주제 과문의 글쓰기 특징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비교 대조는 귀신에 대한 비교 대조, 일상 성과 비일상성의 비교 대조 등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져 글쓰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전거의 활용은 특히 정통 유학자들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인용함으로써 답안 작성자가 자신의 견해에 설득력을 더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궤이, 재변 현상을 그 자체로 다루지 않고 정치 사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군주의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를 부각시킨 점 또한 궤이 및 재변 주제 과문의 글쓰기 특징의 하나로 파악하였다.

주제어: 科擧, 科文, 策文, 怪異, 災變, 比較, 典據, 政治 修辭.

1. 머리말

조선 시대 科試는 관리가 될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이 그 중요한 목표였다. 따라서 과시의 製述에서는 전근대 한문문화권의 지식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儒家 經傳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관리로서의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다. 과시에서 시험되었던 여러 과목들 중에서 실무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문체로 특별히 중시되던 것은 策文이었다.¹⁾ 책문은 통상 時務를 주제로 다양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질문하며, 응시자는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그 질문에 대해 길고 복잡한 논설문을 써내야 했다.

따라서 책문의 문제인 策問은 현실 정치 또는 학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들을 묻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간혹 이와는 다른 성격의 책문이 출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²⁾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怪異 및 災變³⁾ 관련 주제 역시 그러한 특별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주지하다시피 유학은 현실주의, 이성주의, 실천주의적 성향이 짙은 학문인데, 그러한 유학이 지배했던 조선 시대에 이성과는 관련이 멀어 보이는 괴이, 재변 등을 주제로 책문이 출제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례

1) 조선 전기의 金安老는 책문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中宗實錄』 중종 31년(1536) 2월 6일 신묘, “大抵策問, 則儒者博覽群書, 於文無不能, 然後其志施之於策問. 故國家於試場, 設而取之, 欲擇其識時務者用之也.”

2) 이를테면 1616년(광해군 8)의 增廣試 會試에서는 선달 그림의 풍속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세월의 흐름에 대한 舉子의 所懷를 묻는 책문이 출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완,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소나무, 2004, 112~157면 참조.

3) 괴이와 재변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하나로 묶어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후술하겠지만 유가적 관점에서 괴이와 재변 현상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유학에 기반을 둔 지식인들이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괴이, 재변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유학적 사유로 녹여내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전근대 지식인들의 사유의 한 측면을 살펴보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책문은 조선의 국가 고시인 과거에 제출된 답안이 었기 때문에 답안 작성자의 사고를 최대한 정제하여 정리해 낸, 개인의 공식적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특정 주제에 대한 개인의 사적 견해와 공적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처럼, 책문에 나타난 답안 작성자의 생각이 실제 그의 견해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지니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괴이, 재변 등을 주제 혹은 소재로 다룬 조선 시대 과문 작품들, 그중에서도 책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선 시대 과문에서 조선 문인들의 재이와 괴변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주제 의식과 글쓰기 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⁴⁾ 위에서 정리한 몇 가지 이유 외에 비교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분석 대상은 과문 중에서도 책문으로 한정하였다.⁵⁾ 괴이, 재변을 주제로 한 과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 없으나, 鬼神論을 다루면서 개인의 귀신에 대한 견해를 살피기 위해 책문이 활용된 사례 정도가 보인다.⁶⁾

4) 책문 외에도 귀신이나 괴이한 현상을 주제로 한 과문은 종종 발견된다. 이를테면 『논어』 「先進」의 “未能事人，焉能事鬼？” 장이나 『중용』의 “鬼神之德，其盛矣乎” 장을 주제로 四書疑가 출제된 사례가 『臨軒功令』과 같은 과문선집에 수록되어 있다. (귀신을 주제로 한 사서의 작품에 대한 정보는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의 윤선영 교수가 제공해주었다.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5) 책문은 과사에서 출제된 책문 외에도 應製 책문 등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비교 분석의 대상을 과사에서 출제되었던 책문으로 한정하였다.

6) 다음 논문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유성선, 「울곡의 사생관 연구 : <死生鬼神策>을

2. 괴이, 재변 관련 과문의 주제 의식

2.1. 鬼神의 존재에 대한 인식

괴이 관련 책문에서 주로 출제되는 주제는 괴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면, 괴이 하면 먼저 떠오르는 鬼神을 비롯하여 死生, 巫堂, 占卜, 神仙, 災變, 輪回 등 그 주제가 실로 다양하다. 괴이 관련 책문들에서는 이러한 괴이 현상에 대한 일반론을 개진한 뒤 各論(책문의 구성 요소로는 逐條)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원인 진단 및 해결 방안 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조선 시대 문인들은 책문에서 귀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설명하였을까? 유학자들의 사고가 대체로 그러하듯이 조선 시대 문인들의 귀신관은 성리학을 포함한 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귀신의 존재를 제사의 대상이 되는 귀신과 그렇지 않은 귀신으로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다. 조선 중기 蔡壽(1449~1515)의 논리를 살펴보자.

神이란 陽의 靈이요 鬼란 陰의 영이니 모든 사물이 어지럽고 총총하게 천지간에 가득 차 있는 것 중에 造化翁이 만들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春夏秋冬과 寒暑晝夜는 모두 그가 한 것이요, 風雨霜露와 雷霆霹靂은 모두 그가 한 것이며, 呼吸屈伸과 盈虛消息 또한 이 이치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는 귀신의 전체이고 두 기의 良能이니 산천의 신이 또한 어찌 여기에서 벗어나겠습니까. 愼終追遠의 도와 報本反始의 仁 같으면 선조를 제사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2,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한편 조선 시대 귀신론에 대한 선행 연구로 위의 논문을 비롯하여 김우형, 「조선 후기 귀신론의 양상」, 『양명학』 19, 한국양명학회, 2007 등이 있고, 귀신론을 문학 연구와 접목시킨 사례로 조현철,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神異 인식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정출현, 「15세기 귀신담론과 幽冥敍事의 관련 양상」, 『동양한문학회』 26, 동양한문학회, 2008; 강상순, 「성리학적 귀신론의 특색과 귀신의 귀환」, 『고전과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등을 거론할 만하다.

지냄에 있지 않음이 없으니, 천자가 종묘에 제사지내고 대부가 家廟에 제사지내며 士가 선조에 제사지냄에 마땅히 제사지내야 할 신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임하여 곁에서 질정하고 복을 내리고 재앙을 내림에 각기 그 부류로써 하니, 그러므로 齊明盛服하여 제사를 받들어 큰 복을 누림은 귀신의 일단이요, 盤庚이 말한 “崇降罪疾”과 周公이 말한 “能祀鬼神”은 모두 이것입니다.⁷⁾

창작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이 執策에서, 채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조화옹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귀신이 “두 기의 良能”이라고 한 것은 北宋五子の 한 사람인 張載의 견해를 차용해 온 것⁸⁾인바, 음양 두 기운의 작용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한 귀신은 제사를 받을 자격을 지닌 대상이며 인간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귀신은 바로 『中庸章句』에서 공자가 이야기한 바 덕을 지니고서 사람들이 제사를 받들게 하는 존재이다.⁹⁾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귀신도 존재한다.

들보에서 휘파람을 불어 소리가 나는데 그 방을 엿보아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은 천지간의 한 요괴일 따름이니 어찌 두 기운의 양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후세 사람은 제사지내지 말아야 하는 신에게 아첨하고 그를 섬기면서 요행의 복록을 바라며, 지금 사대부의 집안에서도 또한 요망한 무당에게 현혹

7) 蔡壽, <鬼神·巫覡·卜筮·談命·地理·風水>, 『懶齋集』 권1, 『韓國文集叢刊』 15, 385~386면, “神者, 陽之靈也, 鬼者, 陰之靈也, 則凡物之紛紛總總盈於兩間者, 孰非造化之爲也? 是故春夏秋冬, 寒暑晝夜, 皆其所爲也, 風雨霜露, 雷霆霹靂, 皆其所爲也, 呼吸屈伸, 盈虛消息, 亦莫非是理之所使也. 此則鬼神之全體, 二氣之良能, 而山川之神, 亦豈外於是哉? 若其慎終追遠之道, 報本反始之仁, 莫不在於祭先祖, 則天子之祭宗廟, 大夫之祭家廟, 士之祭先祖, 莫非所當祭之神, 而臨之在上, 質之在傍, 降福降災, 各以其類, 故齊明盛服, 以承祭祀, 而以介景福, 此則鬼神之一端, 而盤庚之所謂崇降罪疾, 周公之所謂能祀鬼神者, 皆爲是也.”

8) 張載, 『正蒙』, 「太和」 편. ‘두 기의 양능’ 운운한 부분은 장재의 언설을 직접 인용하였다.

9) 『中庸章句』, “鬼神之爲德, 其盛矣乎! 視之而弗見, 聽之而弗聞, 體物而不可遺. 使天下之人齊明盛服, 以承祭祀. 洋洋乎! 如在其上, 如在其左右.”

되어 깊이 믿고 독실히 섬기며 전해지는 풍속에 빠져 편안하게 괴이하다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¹⁰⁾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귀신을 채수는 ‘妖怪’라고 표현하였다.¹¹⁾ 이러한 ‘요괴’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 제사지내지 말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사지내지 말아야 할 대상에 제사를 지내면서 요행히 복을 받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 무당에게 현혹되어 올바른 도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괴이한 존재가 아니라, 제사의 대상이 아님에도 그러한 귀신을 섬기며 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것이 채수의 생각이다. 귀신은 결국 조화옹이 빚어낸 산물 중의 하나로 인간 이성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때문이다.

이렇게 귀신의 존재를 구분해야 했던 것은 유학에서 조상신의 존재와 그에 대한 제사가 사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유학은孝라는 덕목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것은 부모를 비롯한 자신의 조상에 대한 섬김이다. 조상에 대한 섬김을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喪禮와 祭禮인바, 상례와 제례의 대상이 되는 조상이 세상에 없는 존재라고 해서 그 존재를 부정한다면 유가 사상의 기본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전통적으로

10) 채수, 앞의 글, “嘯於梁而有聲, 窺其室而無覩者, 是乃天地間一妖怪耳, 豈可謂二氣之良能乎? 乃何後世之人, 詔事不當祭之神, 以求僥倖之福祿, 今之士夫之家, 亦惑於巫覡之妖誕, 信之深, 事之篤, 陷於流俗, 而恬不爲怪歟?”

11) 요괴로서의 귀신은 唐나라 韓愈의 <原鬼>에서도 언급되어 채수의 견해와 비교해볼 적하다. 채수의 논리가 한유의 그것과 다른 것은, 한유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괴(한유의 표현은 ‘物怪’)가 인간이 잘못을 했을 경우 재앙을 내리는, 일종의 勸善懲惡의 기능을 한다고 하여 요괴로서의 귀신의 존재를 긍정한 반면, 채수는 아예 요괴로서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귀신을 공경하되 그것이 현실 내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하는 [敬而遠之] 태도를 견지하였던 것이다. 다만 조상신의 존재만 인정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귀신, 즉 무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각종 재변을 일으키는 귀신의 존재¹²⁾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을 구분하여 설명해야만 하였다.

조금 뒷세대 인물인 柳景深(1516~1571)은 ‘霜露鬼神’ 주제의 책문에서 理氣論에 입각한 귀신 이해를 보여주면서 귀신을 천지의 귀신과 사람이 죽은 귀신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귀신의 도는 아득하고 황홀하여 형체나 소리의 징험이 없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이치가 없는데, 이른바 귀신이라는 것은 돌입니다. 천지의 귀신이 있고 사람이 죽은 귀신이 있습니다. 무릇 천지의 귀신이란 樞機를 幹轉하고 玄功을 묵묵히 운행하며 物化를 섞어놓으니, 널리 유행하면서도 은미하고 은미하면서도 널리 유행하는 것, 이것이 이른바 천지 귀신의 常理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와 유무의 가운데에 잠적해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사람이 죽은 귀신의 常理입니다.¹³⁾

문제로 제시된 ‘霜露’는 ‘霜露之感’을 줄인 표현으로, 돌아가신 부모님, 즉 세상을 떠난 조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살아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상을 떠난 조상은 귀신이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조상신과 귀신을 등치시켜 이해하지는 않으므로 이 책문에서는 그에 대한 분석적 해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류경심이 말한 천지의 귀신이라는 존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귀신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 죽은 귀신이 바로 우리가

12) 채수가 말한 ‘妖怪’를 가리킨다.

13) 柳景深, <霜露鬼神>, 『龜村集』 권2, 『한국문집총간』 속3집, 47~48면, “鬼神之道, 杳茫恍惚, 無形聲之驗, 無動變之理, 謂鬼神者有二焉, 有天地之鬼神, 有人死之鬼神, 夫所謂天地之鬼神者, 幹轉樞機, 默運玄功, 頡滑物化, 費而隱隱而費者, 此所謂天地鬼神之常理, 而人之死也, 魂升於天, 魄降於地, 潛寂於有無之中者, 亦人死鬼神之常理也.”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이다. 육체가 사라지고 나서 정신, 즉 魂魄이 각각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 인간에게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숨어 있는 것이 귀신인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귀신은 본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이 常理이나, 원한이 맺혀 소리를 내고 보이고 하는 것은 理外之事라고 하였다.¹⁴⁾ 그는 특히 무당이 이 귀신을 빙자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을 문제시하였다. 그래서 귀신은 사특하고 괴이한 것에 지나지 않고, 허무맹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나아가 그는 앞서 했던 말을 부정하여 귀신에게 있어서는 常理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理 가운데에서 요망하고 괴이한 것이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요컨대 그는 귀신을 인정하는 기본 토대에서 출발해 세상의 올바른 이치와 귀신의 이치를 이분법적으로 도식화하여 전자를 긍정하고 후자를 부정하는 논지를 전개해 나아갔으나, 뒤에 가서는 아예 후자를 부정하면서 후자는 전자의 변이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류경심의 이러한 논리 전개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귀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으나, 그 부정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귀신을 부정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요사스럽고 흉한 것이 죽어 기가 흠어지지 못하고 남아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했던 주희의 귀신론¹⁵⁾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그는 무당이 이 귀신을 빙자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을 문제시하였다.¹⁶⁾

14) 柳景深, 같은 글, “其嘯於樑窺於戶, 假聲於空假形於聲, 禍福之說, 明明於悅怪之間, 駭人聞聽, 恟愚籠誕, 無所不至者, 比比有之, 此安知人死之後, 怨氣蓄憤, 融聚不散, 形毀精結, 托憑所觸, 有如此理外之事乎!”

15) 이에 대해서는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2005, 161~163면 참조.

16) 귀신의 존재와 이 귀신을 이용해 인간을 현혹시키는 무당은 이렇게 같이 논급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조선 중기 귀신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 李珥(1536~1584)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는 死生과 鬼神을 주제로 한 장편의 책문에서 귀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혀 놓고 있다.¹⁷⁾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만약 그 죽음이 바른 명으로 되지 않아 그 기가 발산되지 못하면 울분이 극에 달해 요망함으로 발취되니, 이 또한 理가 혹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사람이 태어날 때 함께 음양의 기를 받으나 혹 올바름으로 기르고 혹 사특함로 길러, 사특함과 올바름이 비록 다르기는 하나 기르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길러서 그 강대한 기를 모으면 죽을 때 혹 이상한 일이 있고, 길러서 그 굳게 영긴 기를 모으면 죽을 때 반드시 괴이한 일이 있게 됩니다.¹⁸⁾

귀신을 氣의 작용이라 설명했던 채수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이도 귀신을 氣의 작용에 의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른 명[正命]의 존재이다. 바른 명을 따랐을 때는 귀신이 생겨날 수 없으나, 바른 명을 따르지 못해 기가 발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요망한 귀신이 생겨나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인식하였을 때, 귀신이라는 괴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이상하게 볼 것 없다는 것이 이이의 생각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괴이 및 재이 현상을 특이하게 보고 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지만, 이이의 논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소거하고서 귀신 현상을 자연스러운 섭리의 결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전근대 유학자들이 괴이, 재변 현상을 받아들이는 논리적 태도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어

17) 이 글에 대한 전면적 논의로 유성선, 앞의 논문 참조.

18) 李珥, <死生鬼神策>, 『栗谷全書』 拾遺 권4, 『한국문집총간』 45, 542~543면, “如或其死不以正命, 而其氣有所未洩, 則憤鬱之極, 發爲妖妄, 此亦理之或然者也, 且人之生也, 同受陰陽之氣, 而或養之以正, 或養之以邪, 邪正雖殊, 而養之則一也, 養之而聚其剛大之氣, 則其死也或有異焉, 養之而聚其堅凝之氣, 則其死也必有怪焉”

주목된다. 후술하겠지만, 괴이 및 재변 현상에 대한 이러한 논리적 인식이 기반이 되어 이러한 현상들을 정치 및 사회 현상과 연관지어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게 때문이다.

2.2. 괴이, 재변 등에 대한 인식

과문이 인재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한문학의 갈래인 만큼 이러한 주제들은 당대의 정치 현실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한 대응 방향 역시 현실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괴이 현상을 주제로 한 책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다. 이러한 면모는 책문 답안 뿐만 아니라 문제인 策問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그 사례로, 李敏敍(1633~1688)가 임금을 대신하여 전시에서 출제한 策問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왕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내가 덕이 없이 祖宗의 어렵고 큰 사업을 이어받아 종일토록 전전공공하며 감히 혹시라도 태만하게 하지 않았으나 다스림의 효험은 갈수록 멀어지고 災異가 연이어 이르렀다. 변고는 이유 없이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이 행한 대로 이르니, 변고를 초래한 까닭을 상세히 말할 수 있는가?

해성은 옛것을 제거하고 새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달포가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고, 日蝕은 음기가 성하고 양기가 미약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지만 해마다 번번이 나타나니, 上天이 경고하는 뜻을 과연 미루어 알 수 있는가?

겨울이 따뜻한 것은 周나라가 망할 때와 비슷하고 지진은 춘추 시대보다 심하니, 이는 또 무슨 징조인가?

하늘의 재앙이 유행하는 것이 비록 시대마다 있었다고는 하지만 매번 여름철이 되면 극심한 가뭄이 씻어낸 듯하고, 陽氣가 갈무리된 뒤에는 나오면 안 되는데 매번 겨울철에도 천둥 번개가 우르릉거리니, 人事에서 무엇을 잘못하여 여기에 이른 것인가?

겨울 안개가 사방을 짙게 막고 태풍이 나무를 뒤흔들며 金星이 대낮에 보이고 바닷물이 붉게 변한 일에 이르러서는 모두 일상적이지 않고 두려워할 이상한 일

아님이 없거늘, 어찌 하늘을 감응시켜 재앙을 초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없겠는가?

내가 이 몇 가지의 재이에 대해 마음으로 그 이유를 찾아 소멸시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지 않은 적이 없어서, 자신을 죄주며 조언을 구하여 신하들의 도움을 바랐고, 政令을 바꾸어 힘써 선한 도를 행하였으며 씩씩이를 절약하여 民力을 아끼고 길렀다. 그런데도 하늘이 재앙을 거두지 않아 흉조가 날로 심해 지니, 이는 내가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오묘함을 알지 못하고 시대의 형세상 힘써야 할 급선무를 얻지 못해서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氣數가 마침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덕을 닦아 하늘을 감동시키는 실질이 있고 정치를 행하여 백성을 편안히 하는 효험이 있어서, 사람이 화합하고 기가 조절되며 천지의 조화가 호응하고 재이가 소멸되어 상서로움이 다 이르게 할 수 있는가?

그대 大夫들이 뜰에 가득히 있으면서 반드시 時事에 慨然한 바가 있을 것이니, 漢나라 유자들과 같이 건강부회한 말로 대답하지 말고 각자 조화의 정미한 이치와 인사의 득실의 근원을 깊이 연구하여 글에 다 드러내도록 하라.¹⁹⁾

숙종 연간에 출제된 것으로 보이는²⁰⁾ 이 책문은 임금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19) 李敏敘, <殿試策>, 『西河先生集』 권13, 『한국문집총간』 144집, 223면, “王若曰: 予以否德, 承祖宗艱大之業, 夙夜兢惕, 罔敢或怠而治效愈邈, 災異沓臻, 變不虛生, 必以類至, 其所以致此者, 可以詳言歟? 彗星所以除舊布新而經月不滅, 日蝕由於陰盛陽微而每歲輒見, 上天警告之意, 果可推知歟? 冬暖近於周亡, 地震甚於春秋, 此又何徵歟? 天災流行, 雖曰代有, 而每當夏節, 亢旱滌滌, 陽氣閉藏, 不宜發泄, 而每當冬月, 震電競號, 人事何失而至此歟? 至於冬霧之四塞, 大風之振木, 金星之晝見, 海水之變赤, 皆莫非非常可畏之異, 豈無所感召而然歟? 予於此數者之異, 未嘗不心求其故, 而欲講消弭之策, 既已罪已求言而望助臣隣矣, 既已變政易令而力行善道矣, 既已節省省費而愛養民力矣, 而天不悔禍, 咎徵日甚, 是予不知天人相感之妙, 不得時勢當務之急而然歟, 抑由於氣數之適然而無容人力於其間歟? 何以則修德而有感天之實, 行政而有安民之效, 使人和氣和而天地之和應之, 災怪消亡而瑞祥畢至歟? 予大夫袁然在庭, 必有慨然於時事者, 勿以漢儒傳會之言爲對, 其各深究造化精微之奧, 人事得失之原, 悉著于篇.” 번역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의 번역을 참조하여 인용자가 수정하였다.

20) 策問을 代作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大提學이나 判書 이상의 직위에 있어야 할 것 인바, 이민서는 1680년(숙종 6)에 대제학에 올랐으므로 이렇게 추정하였다.

이를 해결할 대책을 거자들에게 묻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재변은 혜성 출현과 일식, 따뜻해진 겨울과 지진, 가뭄 등 다양한 자연 현상들이다. 자연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야 이러한 자연 현상들은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근대 시대에는 天地感應의 사상에 따라 자연 현상은 반드시 人事와 연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에서 재변의 발생과 그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특이한 자연 현상의 발현과 그에 대한 대응이 아닌, 일종의 정치 사회적 현상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민서는 이 책문에서 이미 전근대에 생각할 수 있는 재변 현상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재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였던바, 하나는 임금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氣數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재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이민서도 이야기하였듯 인력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저 기수가 변하여 저절로 재변 현상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책문을 출제한 의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이민서의 출제 의도는 재변 현상의 원인을 전자에서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거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어야만 人事의 문제를 해결하여 재이 현상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일까? 柳景深의 경우에는 군주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아아, 푸르디 푸르게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이요 뿔뿔히 아래에 있는 것은 사람

입니다. 위아래가 각기 그 뜻을 얻어 순응하지 않는 사물이 없게 하는 것은 人君입니다. 이 때문에 인군이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 잡아 萬民을 바르게 하니, 人主의 마음이 어찌 萬化의 근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먼저 그 마음을 바로잡아 정성으로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한다면 후에야 사물이 정성에 응하고 사람은 정치에 교화되어 괴이한 기운이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인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전하의 마음이 과연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는데도 하늘이 응하지 않고 백성이 교화되지 않아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한 부름이 없었는데도 이러한 재앙이 있고 이러한 변고가 있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²¹⁾

위 인용문은 1546년(명종 1)에 치러진 重試 策問에 대한 답안으로, 유경심은 이 글로 해당 시험에서 장원급제하였다. 책문의 내용은 災異를 변화시켜 祥瑞를 이르게 하는 방법을 물었던 바,²²⁾ 유경심은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위 인용문을 보면 군주의 마음가짐이 “萬化의 근원”이라는 전제를 제시한 뒤, 군주가 스스로의 마음을 올바르게 해야만 연쇄적으로 조정→백성의 순서로 사람들의 마음이 올바르게 되고 군주의 교화에 응하여 정치가 잘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로서 괴이한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하였다.

- 21) 柳景深, <變災異致祥瑞之道>, 앞의 책, 3면, “嗚呼! 蒼蒼而在上者天也, 林林而在下者人也, 使上下各得其天, 而無物不順者, 人君也. 是以人君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萬民, 則人主之心, 豈不爲萬化之源乎? 是故先正其心, 而持之以誠, 用之以實, 然後物應於誠, 人化於政, 無有乖氣間於其間者, 必然之理也. 然則殿下之心, 未知果出於至誠, 而天不之應, 民不見化而然耶, 抑亦無所召而有如是之災, 有如是之變耶?”
- 22) 당시는 명종이 잦은 즉위한 때였는데, 재변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명종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를테면 1546년(명종 1) 10월 5일 기사(『明宗實錄』 명종 1년(1546) 10월 5일 기사, “近者災異連仍, 極爲惶恐.”), 10월 14일 기사(같은 책, 10월 14일 기사, “近日雷變非常, 至於外方, 無處不然. 今又大雷電, 必有失政之故, 如是爾, 罔知所措.”) 등. 이런 상황에서 정승 세 사람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국이 어수선하였다. 중시의 策問은 이러한 상황에서 명종이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경심의 이 답안은 앞서 살펴본 이민서의 책문과 함께 時務와는 관계가 희박해 보이는 귀신, 괴이, 재변 등의 주제로 출제된 책문인 시무와 이어지는 연관 고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천인감응설에 기반하여 괴이, 재변의 현상을 현실 정치와 연결시켜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고 답함으로써 괴이, 재변에 대한 관심을 현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괴이, 재변 주제의 과문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라고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주장은 조선 시대 문인들의 글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어서 그리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논리이다. 그러나 儒家的 王道政治觀의 세례를 받은 조선시대 문인들의 입장에서는 萬人之上의 군주의 올바른 마음가짐이야말로 모든 정치 사회적 문제 해결의 最深部에 위치한 실질적, 근본적 과제였기 때문에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일견 식상해 보이는 이러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것이다. 근본이 잘 되어 있으면 나머지 일들은 연쇄적으로 잘 해결될 것이라는 사고는 전근대 유교문화권 지식인들의 순수한 현실 인식의 발로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책문이라는 문체 자체가 시험 합격을 목적으로 창작²³⁾되는 것인 만큼, 응시자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서술하기보다는 試官의 눈에 들 수 있게 자신의 견해를 조정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적 방안이 결여된 채 군주의 정신적 올바름만을 강조한 것은 불가피한 한계로 지적되어야 한다.

23) 물론 임금이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부과하는 책문도 있기는 하나 과시에서의 책문에 비하면 그 비중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3. 괴이, 재변 관련 과문의 글쓰기 방법

3.1. 比較와 典據 修辭의 활용

앞서 괴이 관련 과문의 주제 의식을 분석하면서 조선 과문에서는 귀신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제사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귀신과 그렇지 않은 요망한 존재로서의 귀신으로 각각 설명하고 있음을 해명하였다. 조선 문인들은 이러한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주로 비교 대조를 빈번하게 활용하는 면모를 보여 준다. 즉 올바른 리에 따른 일반적인[常] 현상과, 특별한 원인에 의해 나타난 귀신 현상을 대비함으로써 귀신의 속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常’과 ‘氣’를 비교 대조하여 논지를 강화하는 방식을 앞서 살펴본 류경심의 「霜露鬼神」 책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리로 말하자면 자연의 일정함이 있고, 그 기로 말하자면 자연의 이치가 있으며, 리에는 일정함과 괴이함이 있고 기에는 통함과 막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를 잘 말하는 자는 그 괴이함이 아니라 일정함을 말하고, 기를 잘 논하는 자는 그 막힘이 아니라 통함을 논합니다. 그 일정함을 말하기 때문에 리에는 절로 우리 눈앞에 있고 리 바깥의 속임이 없으며, 그 통함을 논하기 때문에 기는 또한 이 이치의 일정함에 있지 기의 품부받은 것이 어떠한가에 구애되지 않는 것입니다. 리는 일정하고 괴는 리가 아닙니다. 기는 일정하며 그 통하고 막히는 것 역시 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의 진실을 알고자 하면서 리 바깥의 괴이함을 의심하는 것은 말단이며, 품부받은 기의 통하고 막힘을 말하고자 하면서 본연의 리에 통달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찌 괴이함을 잡고 일정함을 어지럽히며, 사물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겠습니까?²⁴⁾

24) 위의 책, <霜露鬼神>, 47~48면, “以言其理則有自然之常, 以言其氣則有自然之理, 而理有常怪, 氣有通塞, 故善言理者, 不于其怪而于其常, 善論氣者, 不于其塞而于其通. 于其常故理自在吾目前, 而不爲理外之所欺, 于其通故氣亦在是理之常, 而不爲氣稟之所拘何者. 理者, 常也, 怪者, 非理也. 氣者, 常也, 其所以通塞者亦理也. 然則欲知是理之眞實, 而有疑於理外之怪者末也, 欲言氣稟之通塞, 而不達於本然之理者

류경심은 理에는 ‘常’과 ‘怪’가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잘 알아 리에 대해 잘 말하는 사람은 ‘괴’가 아닌 ‘상’을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괴이한 것은 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본래 알아야 하고 힘써야 하는 대상이라 볼 수 없고, 혹시라도 여기에 신경을 기울인다면 이는 잘못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는 귀신의 경우에도 ‘常理’가 존재하여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 귀신의 ‘상리’이지만, 원망으로 가득하여 보이고 들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공포를 빚어내는 귀신은 “理外之事”라고 보았다. 즉 귀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인정하면서도, 귀신을 ‘상리’에 따르는 귀신(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존재)과 ‘리외’의 귀신(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요망한 존재로서의 귀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조해 보였다.

李珥의 책문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과 논리를 구사하고 있어서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대개 만물은 이 理에 의해 나고 이 리에 의해 죽으니 아직 태어나기 전에도 단지 이 리가 있을 따름이요, 이미 죽은 뒤에도 또한 이 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살아서는 氣가 있고 죽어서는 기가 없는 것은 리의 일정함이며 順이요, 혹 죽어서도 기가 없어지지 않고 발현하여 妖妄이 되는 것은 리의 변괴이며 逆입니다. 성인은 일정함을 말하고 변괴를 말하지 않으며, 순을 말하고 역을 말하지 않으며, 공자가 괴이한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아, 세상의 도가 이미 낮아지고 민심이 날로 나빠져서 天神과 人鬼가 한데 섞여 분별이 없으며, 들보 위에서 휘파람 불고 堂 위에 올라서는 괴이함과 하늘은 음침하고 비가 내려 음습한 이상함이 닿는 곳마다 발생하니, 어찌하여 일정함은 적은 변괴는 많으며, 순은 드물고 역이 많은 것입니까?²⁵⁾

誤也, 安可以執怪而亂常, 以物而疑人哉?”

25) 李珥, 같은 글, 544~545면, “蓋生于是理, 死于是理, 未生之前, 只有是理而已, 既死

위 인용문에서 이이는 리를 常과 順, 變과 逆으로 구분지어 설명하면서 성인은 전자만을 이야기하고, 후자는 세상이 혼란해지고 민심이 타락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귀신을 제사와 숭배의 대상인 天神과 요망하여 변괴를 일으키는 人鬼로 구분하였고, 천신은 죽은 후에 기가 흩어져버리는 반면 인귀는 죽어도 기가 흩어지지 않고 발현되어 요망하고 괴이한 일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비교 대조를 통해 리의 두 가지 속성과 귀신의 두 부류의 특성이 상당히 뚜렷하게 정리되었으며, 이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향상시키면서 자연스레 작가 자신의 논지는 강화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한편, 채수는 귀신, 점복, 운명 등에 대해 논한 책문에서 과거 성인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귀신과 후세의 귀신을 비교하며, 귀신이나 점복, 운명 등은 성인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있던 것인데 성인의 시대에는 올바르고 일상적이었던 것이 후대에 와서 사특하고 괴이한 것이 되었다고 하였다.

적이 생각건대 귀신이란 음양이 운행된 바이고 卜筮는 길흉이 변별되는 바이며, 地理는 성인이 백성의 이익을 살피 거처를 정해준 바입니다. 어찌하여 성인이 바르다고 보았던 것이 후세에는 사특함으로 이어졌으며, 성인이 일상적이라고 보았던 것이 후세에는 허무맹랑한 설이 되어 이에 무당의 풍속이 있게 되고 운명을 담론하는 설이 있게 되고 풍수의 이야기가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이는 곧 사특한 학설이 혼미하게 행해지고 올바른 도가 황폐해지며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고 선비의 풍습이 부정해져서이니, 참으로 짐사계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마땅히 진술해야 할 바입니다.²⁶⁾

之後, 亦有是理而已, 生而有氣, 死而無氣者, 理之常者也, 順者也. 其或死而不能無氣, 發爲妖妄者, 理之變者也, 逆者也. 聖人語常而不語變, 語順而不語逆, 孔子之不語怪者, 良以此也. 嗚呼, 世道旣降, 民心日訛, 天神人鬼, 雜糅無辨, 嚙梁立堂之怪, 天陰雨濕之妖, 觸處皆有, 是何常者之少, 而變者之多, 順者之鮮, 而逆者之夥也!”

귀신을 비롯해 복서, 운명학, 풍수 등 다양한 雜術에 대한 견해를 묻는 책문에서, 채수는 이러한 존재들이 이미 성인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존재하던 것임을 이야기한다. 특히 지리의 경우는 성인이 백성을 위해 살 곳을 정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다. 성인이 통치하는 시대는 유가에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대이며, 이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우주의 이치에 따라 원활히 작동하여 갈등이나 혼란이 없는 시대이다. 채수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러한 시대에도 존재하던 귀신 등이 왜 지금 와서는 사특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는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성인의 시대와 당대의 귀신, 복서 등에 대한 위상을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존재가 과거와 현재에 위상이 달라졌음을 강조하고, 이어서 도가 황폐화되고 풍속이 땅에 떨어진 당대의 현실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인용 부분은 이 작품의 허두 부분인바, 비교 대조의 방법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자연스럽게 주제 의식을 제시함으로써 허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평가된다.

한 가지 첨언하면, 기실 비교 대조는 괴이 관련 과문만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교 대조라는 수사 기교 자체가 글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흔히 동원되는 서술 기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필자가 비교를 통한 주제 구현을 괴이 주제 과문의 서술 기법상의 특징적 면모로 제시한 이유는, 괴이한 존재 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은 존재 내지는 현상,

26) 채수, 앞의 글, 385면, “竊謂鬼神者, 陰陽之所以行也, 卜筮者, 吉凶之所以辨也, 地理者, 聖人之所以視民利, 爲之奠居者也. 奈何聖人示之以正, 而後世繼之以邪, 聖人示之以常, 而後世繼之以茫昧之說, 於是乎有巫覡之風, 於是乎有談命之說, 於是乎有風水之言乎? 此乃邪說之殄行, 正道之蕪蕪, 風俗之不美, 士習之不正, 誠如執事所以發問, 而愚生之所當陳者也.”

즉 ‘常’과의 비교 작업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서술 기법, 혹은 수사 기법이라 해도 특정 주제의 특정 문체에서 그 필연성이 인정된다면 그 기법은 해당 문체 내지는 작품군의 글쓰기 방식상의 특징이라고 제시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필자는 비교를 통한 주제 구현이 궤이 관련 과문의 글쓰기 특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편, 궤이 및 재변 관련 대책문들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수사 기교로 典據를 들 수 있는바, 이들 작품에서는 유가 경전을 비롯하여 北宋 성리학자들의 견해를 빈번히 활용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다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앞서 살펴 보았던 蔡壽의 책문의 일부를 예로 들어 본다.

神者, 陽之靈也, 鬼者, 陰之靈也. (朱熹, 『中庸章句』)

二氣之良能. (張載, 『正蒙』)

齊明盛服, 以承祭祀, 而以介景福. (朱熹, 『中庸章句』)

崇降罪疾. (『書經』 「盤庚」)

能祀鬼神. (『書經』 「周書」)

嘯於梁而有聲. (韓愈, 「原鬼」)

丘之禱久矣. (『論語』 「述而」)

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淫祀無福. (『禮記』 「曲禮」)

이는 앞서 2장 1절의 첫 두 인용문을 대상으로 인용의 출처를 조사 해본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주희의 『중용장구』와 장재의 『정몽』 등 송대 성리학자들의 저술, 한유의 「원귀」와 같은 당대 유학자의 저술을 비롯하여, 『서경』, 『논어』, 『예기』 등 유가 경전이 두루 인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과시의 시권에서는 법적으로 당색을 언급한 경우, 궤이하고 샅된 표현을 쓴 경우, 불가의 어휘를 차용한 경우 등은 답안의 내용과는 상관 없이 합격시키지 않았으므로²⁷⁾ 유가 경전을

비롯한 유학자들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크게 부각되는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보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유의 「원귀」에서 장재와 주희로 이어지는 유학자들의 저술을 직접 인용한 부분이다. 채수는 유학, 특히 성리학에서 정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일컬어지는 이들 유학자들의 저술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적 투철함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아울러 자신의 논지가 정통 성리학의 맥락을 계승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임으로써 설득력을 더하였던 것이다.

3.2. 정치적 수사와 군주의 책임론

앞서 몇 차례 언급했듯, 괴이, 재변을 주제로 한 책문들은 괴이, 재변 현상을 자연 현상 그 자체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간 사회 및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관지어 이해하였다. 이는 괴이, 재변 주제 책문의 주제 의식 상의 특징이 될 뿐만 아니라, 글쓰기 방법의 측면에서도 특징적인 면모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면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주제에 대해 논리적인 수용 과정²⁸⁾을 거친 뒤, 이를 정치적, 사회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시키는 논리 전개, 그리고 이를 위해 군주의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우는 소재 선택 및 배열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는 고대 로마 수사학에서부터 강조되어 왔던, 이른바 수사학의 5요소인 논거 발견술[inventio], 논거 배열술[dispositio], 표현술[elocutio], 연기술[actio], 기억술[memoria]²⁹⁾ 중에서 앞의 두 가지와 직접적으로

27) 『續大典』「禮典·諸科」, “大·小科場文字中, 語及色目, 或用奇僻之語者, 勿取.” 『春官志』 권1, 「科擧」, “增廣舉子對策有引用佛語者, 有引西浦稗說者, 臺臣皆論啓拔之.”

28) 앞서 2장 2절에서 분석하였던 주제 의식의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다.

29) 현대 수사학에서는 논거 발견술과 논거 배열술, 표현술이 특히 중시되고 연기술과 기억술은 과거에 비해 중요도가 많이 감소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초기의 서구 수사

연관된다. 즉 주제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형상화하기 위해 발화자가 선택하는 글감이 글의 내용과 논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괴이 및 재변 관련 책문에서는 발화자가 군주의 정치적 올바름을 글감으로 선택함으로써 괴이, 재변 현상을 정치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배치에 있어서, 괴이 및 재변 현상 자체에 대한 언급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고, 군주의 마음가짐과 올바른 정치적 태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적 면모이다.

괴이, 재변 현상을 군주의 마음가짐과 연관짓고,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군주의 올바른 정치를 거론하는 것은 결국 정치 사회적 현실과 그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군주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태도로 귀결된다. 이러한 논리는 군주가 괴이, 재변 현상을 주관하는 하늘(天)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존재라는 사고가 기반에 깔려 있으며, 책문에서 역시 이런 사고를 전면으로 내세우고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신이 듣기로, 임금의 마음은 하늘입니다. 비를 내리고 날이 개게 하는 것은 하늘이지만 비를 변화시켜 날이 개게 하는 것은 우리 임금의一念이니, 내 마음에 혜성이 사라지면 하늘에 혜성의 변고가 없고, 내 마음에 비가 개면 하늘에 비가 왔다가 개는 순환이 있게 됩니다. 하늘을 관찰하고 자신을 살펴면 璿璣를 관찰할 필요가 없고, 하늘을 점쳐 사람에게 미치면 卜筮로 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요 임금의 眷命과 순 임금의 申休와 주 무왕의 受祜는 모두 실로 내 한 마음의 하늘이어서 응당 하늘이 상서로움일 내려주는 것이니, 우러러 七政이 나란해지고 땅으로 숨어 만물이 성국하며 안으로는 朝野가 화합하고 밖으로는 먼 곳의 사람이 찾아오게 되리니, 어찌 저 하늘에서 구하기만 하고 나의 공경을

학은 대중 연설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어떻게 연설을 하고, 이를 어떻게 기억하여 표현할지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 수사학은 연설보다는 글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글쓰기의 수사학을 학문적으로 해명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뉘는 實德은 데만히 하겠습니까.³⁰⁾

위 인용문은 앞서 살핀 바 있던 명종 1년의 重試 책문에서 宋希奎(1494~1558)이 제출했던 답안으로, 송희규는 류경심에 이어 乙科 1인으로 차석 합격하였다. 여기에서 송희규는 임금의 마음을 하늘과 등치시켜, 괴이한 자연 현상은 임금의 一念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구사하였다. 괴이한 현상이나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재변 등은 군주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군주의 마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괴이, 재변의 원인은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이 군주의 마음에서 찾으면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골자이다. 결국은 임금의 마음에 있는 틈에서 괴이한 현상이나 재변이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자신의 마음을 더욱 엄히 다스려 빈틈없는 정치를 해야만 괴이, 재변 등이 소멸될 것이다.

이는 물론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미신이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다분하지만, 전근대인들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자연 현상에 대한 그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자료이다. 이처럼 천-인의 인과 관계에 대한 철학적 확신에 기반하여, 괴이 및 재변 현상을 인간 세계의 정치 사회적 현실과 연관지어 이해하고 군주의 책임론을 제기함으로써 그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의 구성은 괴이, 재변 현상을 주제로 한 책문 작품들이 보여주는 논거 발견 및 배열상의 유의미한 특징이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괴이 및 재변 현상 자체에

30) 宋希奎, <災異策>, 『鄜溪集』 권1, 한국문집총간 속2, 99면, “臣聞: 君心即天也, 雨暘者天也, 而變雨而暘者, 吾君之一念也. 吾心之曄孛消, 則天無曄孛之變; 吾心之雨暘若, 則天有雨暘之順. 察天審己, 不必察之於璿璣; 占天以人, 不必占之於卜筮. 堯之眷命, 舜之申休, 武王之受祜, 皆實吾一念之天, 而應在天之降祥. 仰焉七政齊, 潛焉萬物遂, 內焉而朝野和, 外焉而遠人格, 豈有求之於在彼之天, 而慢吾修敬之實德乎?”

대한 작가의 관심 내지는 이해가 작품에서 완전히 수면 아래로 잠겨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책문은 문제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목 조목 글쓴이의 견해를 밝히는 ‘逐條가 구성 요소의 하나여서 문제에서 언급된 사항들에 대해 답안에서도 반드시 논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작성자의 시각, 나아가 출제자의 시각은 정치, 사회와의 관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괴이, 재변 현상이 정치 사회적 현상과 연관되는 것을 관련 책문 글쓰기의 수사적 특징 중 하나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4. 맺음말

이 논문은 조선 과문 가운데 괴이, 재변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에 주목하여 이들 작품들을 분석해 조선 문인들의 괴이, 재변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주제로 한 과문 작품들의 글쓰기 방식을 살펴보았다.

조선 문인들은 괴이 주제의 과문, 특히 책문에서 귀신에 대해 그 특성을 구분하여 인식하였고, 특히 제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귀신들에 대해서는 ‘妖怪’ 등의 표현을 쓰면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었다. 반면에 제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이나 조상 등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긍정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괴이, 재변 현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연 현상으로 수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현실과 이들 현상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이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던바, 특히 군주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노력을 근본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강조하는 성향을 보였다. 요컨대 귀신 등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정치와 연관지어 時務에 대한 주제로 승화시키는 것이 조선 과문(특히 책문)의 특징적 면모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괴이 주제 과문의 글쓰기 특징을 살펴본바, 비교를 통한 주제 구현, 전거를 활용한 설득력

강화 두 가지를 괴이 주제 과문의 글쓰기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비교 대조는 귀신에 대한 비교 대조, 일상성과 비일상성의 비교 대조 등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져 글쓰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전거의 활용은 특히 정통 유학자들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인용함으로써 답안 작성자가 자신의 견해에 설득력을 더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괴이, 재변 현상을 그 자체로 다루지 않고 정치 사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군주의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를 부각시킨 점 또한 괴이 및 재변 주제 과문의 글쓰기 특징의 하나이다.

향후 괴이 관련 한문학 자료를 좀 더 폭넓게 섭렵하고 분석하여 본 논문의 논지를 보강하고, 중국 작가들과의 비교 연구, 시대별 괴이 현상에 대한 인식의 변천 양상 등 연관 주제로 관심을 확장해 나아가면서 학계에 그 성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기본 연구 자료】

- 柳景深, 『龜村集』, 한국문집총간 續 3집, 한국고전번역원.
宋希奎, 『仰溪集』, 한국문집총간 續 2집, 한국고전번역원.
尹 愔, 『無名子集』, 한국문집총간 256집, 한국고전번역원.
李敏敍, 『西河集』, 『한국문집총간』 144집, 한국고전번역원.
李 珥, 『栗谷全書』, 한국문집총간 45집, 한국고전번역원.
蔡 壽, 『懶齋集』, 한국문집총간 15집, 한국고전번역원.
『臨軒功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續大典』, “<http://db.history.go.kr/law/>,” 국사편찬위원회.
『春官志』, “<http://db.history.go.kr/law/>,” 국사편찬위원회.

【저서 및 논문】

- 강상순, 「성리학적 귀신론의 틈새와 귀신의 귀환」, 『고전과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연구학회, 2010, 195~226면.
김우형, 「조선 후기 귀신론의 양상」, 『양명학』 19, 한국양명학회, 2007, 1~25면.
김태완, 『책문 :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소나무, 2004, 112~157면.
김영식, 『주희의 자연 철학』, 예문서원, 2005, 161~163면.
유성선, 「율곡의 사생관 연구」, 『인문과학연구』 22,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309~328면.
정출현, 「15세기 귀신담론과 幽冥敍事의 관련 양상」, 『동양한문학회』 26, 동양한문학회, 2008, 419~448면.
조현설,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神異 인식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147~178면.

논문접수일: 2022.11.30. 심사완료일: 2022.12.24. 게재확정일: 2022.12.29.

Abstract

A Study on the Gwamun of the Joseon Dynasty on the Theme of Strange and Calamity

Kim, Kwang-nyeon*

This paper analyzed the works on the theme of strangeness and calamity in gwamun(科文)s of the Joseon Dynasty, and examined the perception of strangeness and calamity of writer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writing style of gwamun's works on the subject.

Writers of the Joseon Dynasty distinguished and recognized the characteristics of ghosts in Cewen under the theme of strangeness, and expressed negative attitudes by using expressions such as "monster" for ghosts that were not subject to ancestral rites. On the other hand, the existence of the person subject to the memorial service was affirmed. In addition, the phenomenon of strangeness and calamity was directly related to and understood with political reality, and efforts were made to suggest specific measures to solve this problem. As a solution, the right mindset and effort of the king were mainly presented as fundamental tasks. In short, it is a characteristic of gwamun of the Joseon Dynasty to sublimate the supernatural phenomenon into the subject of the requirements of the time in relation to politics.

In gwamun with the theme of strangeness and calamity, two characteristics were characterized: implementing the theme through comparison and reinforcing persuasion using reference. Comparison and contrast consisted of various aspects, such as comparison and contrast of ghosts and daily and extraordinary comparison, and the use of reference was used to add persuasion to the opinions of Confucian scholars by intensively citing their opinions. Also,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Gwamun on the theme of strange and calamity was

* Research Professor, Inst.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

that it brought the issue of the monarch's political correctness into the realm of politics and society, rather than dealing with strange and cataclysmic phenomena per se.

Keywords: Gwageo(科學), Gwamun(科文), Cewen(策文), Strangeness(怪異), Calamity(災變), Comparison, Reference, Political rhetoric.